





▶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아

씨엠엔텍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국내에서 국제공인 교정기관(액체유량) 분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의 성능 평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. 또한 국내 동종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전국적인 고객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납품 후 교정 및 유지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40여 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를 만들어낸 씨엠엔텍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것은 '실패'라는 단어였다.

“실패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‘다시 한 번 해보자’라는 오기를 심어 주었고, 현재에 안주하려던 모습을 도전의 자세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. 결국 실패가 달콤한 약이 된 셈이죠.”

더 큰 성공을 위해 홍대진 대표는 모든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.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.

“유량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품입니다. 10년이 지나도 한결

같이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,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.”

씨엠엔텍은 설립 초기부터 자체 개발한 초음파 유량계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다. 지금도 제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매출의 15% 이상을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,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등 꾸준히 원천기술을 개발해 가고 있다. 신뢰란 말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얻어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.

씨엠엔텍 회의실 한편에는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. 그리고 그 위에 ‘독서는 완성된 인간을 만든다’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. 생각하는 경영, 생각이 있는 경영, 생각을 나누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. 어쩌면 실패를 슬기롭게 이겨낸 것도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리라.

실패의 아픔을 성장의 달콤함으로 승화시킨 기업, 업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씨엠엔텍의 본격적인 날갯짓은 이제부터 시작이다. ☺

국제공인 교정기관(액체유량) 분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